

집은 잠시 후 끝난다.
은총.

집

KIM CHUL

집

목차

01	집 밖	4
02	안 內	8
03	집	12
04	전기	16
05	물	21
06	침실	25
07	지속	29

08	잠시	34
09	만찬	38
10	벽	41
11	옷	46
12	정복	50
13	구색	54
14	배출	58
15	연가 戀家	62
16	재택임종 在宅臨終	67

집 밖

집은 밖에서 보면 건축물이다. 인공 구조물. 나무들로 뒤덮인 산을 바라본다. 자연물이다. 지구계의 지물地物. 나는 집 밖이고 산 앞이다. 집과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집은 집이요 나는 나이다. 산은 산이요 나는 나이다. 밖과 앞, 나.

이삼십 미터 거리를 두고 보고 있는 산. 그 산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 집 한 채가 보인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수다數多한 적赤 소나무들이 뺨뺨이 꽃혀 있는 돌레 암산巖山 중앙이다. 평탄화된 이곳은 집 밖 십오 미터 정도이다.

집 밖 나의 존재는 실체¹이다. 그러나 고대로²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실체로서의 나는 또 다른 실체인 자연물 산과 건축물 집과 오감往來이 없다. 산속으로 들어가 필요를 얻고 집 안으로 들어가 숙식해야 산다. 밖에서는 각각이다.

실상 인간의 실체³는 밖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모든 지구계 생명체들은 각자 나름의 거처가 있다. 어떤 크기이든, 어떤 재료로든, 어느 장소이든. 밖에서만은 살 수 없다. 안 필요.

집 밖, 산 앞은 그저 공간적 위치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다. 어떤 실체가 세계 가운데 자기 공간 아닌 그 외外에 위치하고 있음을 뜻한다. 있음 하되there-is-being 잘 있음being-well은 기대하기 어렵다. 집 밖 고대로는.

사람은 특정 공간이다. 세계의 모든 공간의 존재란 있을 수 없다. 여행객이나 일정 기간 체류자는 있을 수 있다. 숙박하는 공간의 존재로. 사람은 집이다. 태어나 집에서 크고 성장해 자기 집 마련을 위해 집들을 옮겨 가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비로소 집 밖의 물체로 변화한다. 집 밖에는 나다운 구석이

1 실체實體: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

2 고대로: 모양이나 상황 등이 바뀌지 않고 본래 있던 대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그렇게.

3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로서의 실체와 같은 단어.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대상의 진정한 정체나 본질'의 의미.

있을 수 없다. 밖에서는 모두 객체화⁴된다. 주체는 안에 있다.

건축물로의 집이 있어도 집 밖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 자가自家⁵이든 전세이든 월세이든 아무리 찾아봐도 집 구조물 안에 자가⁶ 본위本位⁷의 영성靈性⁸이 없다. 물체들만 있다. 인체, 물체, 주택住宅⁹. 소유물.

‘집 안의 수호신을 옮겨 간다’라는 고대 서양 옛말이 있다. 법정 스님도 생전 설법 중에 자신이 확신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도량道場¹⁰마다 저마다의 도량신¹¹이 있다’는 것이었다. 공간에는 그곳 사람의 성정性情과 싫음liking, 기운과 정신이 살아 운동해야 한다. 그런데 수호신도, 도량신도, 기운과 정신도 집에 없다. 존재 없음.

4 객체화客體化: 「철학」 사람의 인식이나 실천의 대상이 주체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인 것으로 됨.

5 자가自家: 자신의 집.

6 자가自家: 자기 자체. [예] 한 달을 입원해 있다가 자가 치료가 가능해져서 퇴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7 자가 본위: 자기 자체로의 판단이나 행동에서 중심이 되는 기준. 자기 자체가 되어 사는 본래의 자리.

8 영성靈性: 성정性情의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9 주택住宅: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지은 건물.

10 도량道場: 「불교」 불도를 닦는 곳(=법굴).

11 도량신神: ‘도량을 존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형상화한 존재로 해석 (글쓴이). 수행 공간에 깃든 신성한 기운과 보호를 상징.

전인적全人的¹² 존재가 물체 구성 원소 정도로 해체되어 산다. 신身과 물物만 집. 집이 존재에 머무르지 못한다. 따로. 무혼無魂집은 집 밖이다.

내가 소유한 건물로의 집이 내 속에 머무르기를 허용한다. 나 역시 그의 안으로 들어가 살아난다. 둘의 오감往來과 합일合一이 집-안-나이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세속의 물신物神을 불태우고 내 정신으로 집 안에 들어와 나의 몸뚱이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영혼의 수행을 일상日常한다.

집 안은 비바람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 또한 움직이는 생명체動物의 생리生理와 욕구를 해소하게 한다. 들이고 배출하고 쉬고 자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글 읽고 글 쓰고 사랑하고 배우고 수행하는 세상 유일 참-도량.

그러나 집 밖에 혼신魂身¹³이 나가 있다. 혼신渾身¹⁴의 힘을 다해 집을 소유·관리하고 다음 새 집을 위해 밖의 일을 하며 산다. 밖여단이¹⁵ 집. 일상 자기 언어, 빛깔, 기쁨, 노래, 영성, 변화는 그 창들로 유출된다. 사람과 함께.

12 전인적全人的: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인 지성, 감성, 의지를 균형 있게 갖춘 인격을 지닌 사람의 것.

13 혼신魂身(글쓴이의 조어): 흔히 혼신은 魂神으로 영혼과 정신을 뜻하는 단어. 여기서는 神을 身으로 하여 육체와 정신을 일컬음.

14 혼신渾身: 몸의 전체. [예] 혼신의 힘을 다했다.

15 밖여단이: 「건축」 방 바깥쪽으로 열리게 된 여단이.

안

內

새가 새장 안에 있으면 간혀 있다고 한다. 날 수 없다. 새장을 제공해 준 이는 새를 기르고 있다. 모이도 주고 물도 주고 발톱-부리-연삭-돌도 주고 햇대도 주고. 주고 또 주고. 공급자.

옛이야기 하나. 정글로 탐험을 간 탐험가가 숲속에서 형형炯炯¹⁶한 모습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앵무새들을 보았다. 처음 보는 종류의 새였다. 그중 하나를 용케 잡아 와 집에서 키우게 되었다. 기품 있는 모양에 말도 잘하고 정말 최고의 애완조이었다.

16 형형炯炯하다: (눈빛이나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밝다.

함께 지낸 지 두 해가 지날 즈음 탐험가는 다시 이전에 갔던 정글로 탐험을 가게 되었다. 가기 전에 앵무새에게 물었다. ‘네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전해 줄 말이 있으면 알려 줘.’ 앵무새는 ‘나는 정말 행복해’라고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탐험가가 이 년 전에 왔었던 앵무새 군락 지역에 당도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앉아 있는 몇 마리 새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너희 친구가 “나는 정말 행복해”라고 전해 달라고 했어!’ 그러자 그중 한 마리가 갑자기 충격을 받은 듯 몸이 굳어지고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죽었다.

탐험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앵무새에게 가서 네 친한 친구가 전해 달라는 말을 듣자마자 죽었다고 하며 위로해 주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앵무새가 친구 새처럼 몸이 딱딱해지고 햇대에서 떨어져 죽었다.

새장 바닥에 죽어 있는 앵무새를 잡아 집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앵무새를 땅에 잠시 두고 땅을 밟다. 그런데 앵무새가 재빨리 움직이며 날갯짓을 해서 큰 나뭇가지에 앉았다. 탐험가는 속았구나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앵무새 왈曰, “‘행복해’라는 말을 전했을 때 내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지요? 그 친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새장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준 거였어요!’

탐험가와 이 년여 동안 함께해서인지 멀고 험한 여정이었음에도 결국 자신의 집인 정글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다. 새장 안에서 정글 안으로. 새장 안의 세상에서 살 때는 모든 것이 공급되었다. 자신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그러나 길들여지고 간혀 있는 상태로 산다는 것. 새장 세상 안은 새로운 새답게 살다 죽을 곳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 오히려 더 만족하게 지내는 새들도 무수히 많다. 아니라면 체념하고 적응한 채로 사는 새들도 부지기수不知其數¹⁷이다.

안內in은 주주로 장소나 위치 혹은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내게 안은 공간이다. 나로서의 존재로 사는 공간. 나의 일상이 가능한 공간. 내가 나됨으로 나니는 공간. 안-內-in.

쓸 것과 돈을 공급받고 대가로 길러지고 길들여지는 상태 속에서 나온 곳이 안이다. 새장이라는 세상은 안이 아니다. 살아 있는 동안 이변이 없다면 공간은 없다. 새가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서의 새장은 절대로 공간을 주지 못한다. 안 할 것이다. 새를 소유하려면.

17 부지기수不知其數: 그 수를 알 수 없다는 뜻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매우 많음을 나타내는 말.

안은 한 존재가 제 성정性情과 좋음liking을 일상에서 자유롭게 자기 방식과 판단으로 主스대¹⁸ 있게 열고 닫고, 밀고 닫고, 승昇하고 강降하고¹⁹, 좌座하고 행行하고 참站하고²⁰, 들락날락이며 구현具現하여 사體驗는 공간이다. 안은 자신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 제 생태를 만들고 체험하는 공간이다. 공간 안 나.

18 좇대: 사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자신의 처지나 생각을 곳곳이 지키고 내세우는 기질이나 기풍. 중심.

19 승昇: 오를 승 · 강降: 내려갈 강.

20 좌座: 앉을 좌 · 행行: 행할 행 · 참站: 설 참(stand).

집

토포필리아(topophilia)²¹ 즉 ‘장소에 대한 애호(愛好)’는 나의 성정(性情) 곧 본성(本性)의 원형(原型)들 중 하나이다. 집의 소유욕보다 장소와 공간으로서의 집에 대한 애착이 나의 욕망이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행위는 당연한 과정이다. 그러나 칼로 무자르듯 원래 같았던 덩어리를 두 쪽 낼 수 있을 정도로 각각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다.

21 topophilia: topo(장소, 땅, 지역)+philia(사랑, 애정, 우정, 애착). 장소에 대한 사랑·애호.

자기 토지가 없으면 신의 선택을 받은 민족도 노예이거나 유랑민들이다. 그 신분이나 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땅에 대한 문제이다. 살 만한 곳 가나안을 약속받고 그 장소로 향한 40년간의 여정이 모세와 히브리인들의 출애굽Exodus 역사이다.

신-우주-자연-세계. 이 배치에 ‘나’라는 존재를 병렬시켜 주는 것이 바로 땅으로서의 장소이다. 토굴이든 움막이든 판잣집이든 벽돌집이든 성이든 요새든 저택이든 아파트든 빌라든 주택이든 건축 자재나 양식이 핵심이 아니다.

외부 박한 환경에도 악한 이들의 위협에도 법적인 제도와 제약에도 주변 사람들의 변동하는 심보에도 마음 편히 거주하며 숙박하며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나에게서는 집이다.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러하다.

나라가 없는 서러움. 많이 들고 많이 접했다. 한국인으로서. 다른 민족들도 거의 모두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다. 국가 주권이 빼앗기면 영토권 역시 자동 이체된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의 역사적 상황에서도 어느 장소, 어느 주소의 집에서 살게 된다. 수용소로 끌려간 최악의 처참한 경우 외에는.

이러한 역사적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대다수의 인류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 혹은 주거 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고 매매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다. 모두

자본주의 자유 경제 체제에서 늘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소유, 매매, 임대, 자금. 투자. 비교 분석.

풍수지리학은 어려운 학문이다. 학문으로 보기에 어렵다. 사전에도 풍수지리설이든 풍수지리학이든 풍수지리든 뜻풀이 전에 모두 「민속」이라는 울타리를 친다. 풍수지리風水地理는 산山세, 지地세, 수水세 따위를 보아 인생 길흉화복에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해석과 이론이다.

현재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속世俗에는 민속民俗²²이 없다. 민속에는 터의 형세를 보고 자리를 잡는 터 잡기 과정이 있다. 민간 신앙화되기 전까지는 현명한 생각이다. 세속에는 터 잡기가 없다. 집 사기. 집 팔기. 땅 사기. 땅 팔기. 재산 증식의 가치를 매매하는 과정이 있다.

잘 지내는 중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살 만한 곳으로 마음에 들어오는 땅이나 집을 만난다. 토포필리아 성향의 나로서는 애정의 심정으로 다시 찾아가 그곳의 풍수를 몇 번이고 이리저리 보며 궁리한다.

22 민속民俗: 민간 생활과 관계된 생활 풍속이나 습관, 신앙, 기술, 전승 문화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토지와 집. 장소를 사랑하는, 엄밀히 말해 장소의 중요성을 아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서 ‘이곳이 내가 되어 살 곳이다’ 애착이 생기면 결정된 것이다. 풍수가 나를 좋아하고 그러한 풍수에 놓인 땅地을 내가 사랑하면 그곳은 늘 집이 되었다. 한국에서나 외국에서나.

행정과 재정이 관련된 절차는 리치理治되었다. 理는 값비싼 옥구슬들을 흠집 없이 정교하게 뚫어 실로 꿰는 까다로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뜻했다. 매매는 그렇게 처리하면治 된다. 집-사는-나? No! 나-사는-집!

내 **싫음liking**(애호·취향·상태)이 사는 장소, 집.

전기

태양광으로 전기를 자급하고 있는 주택들이 곳곳에 보인다. 패널들로 알 수 있다. 한전에 전기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잉여 전기를 되팔 수도 있다.

아직 일지 앞으로도 계속 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태양광 전기 시설에 관심이 없다. 설치 비용이 이유는 아니다. 한전 소유 전봇대에서 들어온 전기선하고 다를 것이 없다. 집 밖에서 온다.

전기 없는 집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집이다. 전기는 외부에서 공급받는다. 수력, 풍력, 화력, 원자력, 태양광선을 원료로 에너지를 발생시켜 발전發電한다. 만들어진 전기는 전국 가가호호 전기선을 통해 전송된다.

전기 인입이 필수인 집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아니다. 집은 전기 사용소使用所²³이다.

건축물로서의 집은 설계대로 시공되고 완공되는 순간부터 인입引入되어야만 하는 비건축적 요소要素²⁴들이 있다. 기본 요소들로 건물은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집이 된다.

전기가 끊어졌을 때 참으로 난감하다. 가전제품과 디지털 기기들의 사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두절杜絶²⁵. 집 형태의 구조물일 뿐이다.

종교인이나 수행자, 혹은 자연인들 정도가 이런 상태에서 생활 가능할 것이다. 의도적 두절을 선택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거처place.

전기가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다. 피복된 전기선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량기를 보면 디지털이든 숫자판이든 현재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數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사용使用: 사물을 필요로 하거나 소용이 되는 곳에 씬. 사람을 다루어 이용함.

24 요소要素: 어떤 사물을 구성하거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근본적인 조건이나 성분.

25 두절杜絶: 교통이나 통신, 소식 등이 막히거나 끊어짐. 또는 그렇게 함.

건물 자체는 설계의 낙성落成²⁶이다. 더 이상 어떤 것과도 접촉하고 교류하지 않는다. 확정. 고정. 단독. 그러나 생활 터로의 집은 다르다. 입출出入, 유입流入, 배출, 연결. 풍수 風水. 흐름.

사람은 어떤가? 높은 지능과 의식을 소유한 고등한 생명체 living thing, 육체로 존재한다. 인간은 유기체organism²⁷이다. 세포, 조직,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작용, 결합해 몸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고 할 때, 이는 신체身體의 모든 기관들과 주 기능들, 섭생과 배설을 통한 에너지 대사와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사람은 생합성 生合成biosynthesis, 입을 통해 인입된 외부의 음식물을 통해 에너지를 만든다.

26 낙성落成: 건축물을 완성하여 공사를 끝냄.

27 유기체有機體: 「생물」 유기물로 이루어진, 생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 각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로 하나로 통일되어 이루어져 있어 부분과 전체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 국가나 사회 따위.

집에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가전제품들과 디지털 기기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통해 작동한다. 사람의 몸뚱이에게는 외부 음식물이 전기이다. 영양소를 합성한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는 동안은 먹어야 산다.

집과 사람 몸이 그러할진대 집에서 일회 인생을 현재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어떠하겠는가? 조화와 평화, 균형과 깊음의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인입하고 섭취해야 할 것들이 없겠는가?

있다. ‘있다!’ 인류 중 현자들이 줄곧 말해 왔다. 다른 시대, 다른 인종,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방식의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메시지를 제공해 주었다. 이 떡을 이 음료를 먹고 마셔 심령에 들어라고. 기억하고 묵상하라고.

〈사랑의 원자탄〉. 70년대 후반, 손양원 목사의 생애를 그려 낸 한국 영화이다. 내용은 이러하다.

여순 사건 중에 안재선이란 자가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인다. 손 목사는 살해범을 용서하고 나아가 양자로 삼았다. 당시 계엄 사령관이 한 말이다. ‘나는 이와 같은 사랑을 전에는 결코 들어 보지 못했다. 그것은 내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파괴하고 죽이는 원자 폭탄과 죽음에서 생명을 되살렸던 손양원 목사의 별명 ‘사랑의 원자탄’을 빗대 영화 제목으로 삼은 것이다.

전기가 들어와야 한다. 그제야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이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기능한다. 발휘된다. 빛과 열을 내고 한
몸,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한다. 하루하루 새롭게 살려 내는
역사를 일으킨다. 외부에서부터 들어야 한다. 우리 내부의
콘센트마다 사랑이 흘러 들어와야 한다. 사랑을 들이라.
들으라. 연결하라. 결합하라. 합성하라. 사랑으로 작동되는
사랑을 사용하라.

집이여, 초원의 한 부분인, 저녁의 불빛인
집이여 너는 갑작스레 사람의 얼굴을 얻는다
너는 안으며 안기며 우리 곁에 있다.²⁸

28 릴케에서 인용. 《문학Les Lettres》지誌 4년째 권 14·15·16호 합본, p.II.

물

인간 생의 첫 번째 처소 자궁子宮. 양수羊水로 차 있는 태아의 집. 9개월 동안 물속에서 배아에서 태아로 자라난다. 영양분과 산소는 태반과 탯줄을 통해 공급받는다.

그런데 양수 관련 몇 가지 특이점이 있다. 실제 폐로 산소 호흡은 하지 않지만, 태아는 양수를 폐로 마시고 내뱉고 하면서 초기 얇은 막을 호흡 기관인 폐로 발달시킨다. 자궁에서 나올 때야 폐에 있던 물을 뱉고 숨을 쉬기 시작한다.

양수는 영양소·호르몬·세포가 용해되어 있는 물(98~99%)이다. 임신 중기 이후로는 태아의 소변이 양수의 중요한 공급원이 된다. 태아는 물로 차 있는 자궁에서 자라고 움직이고, 양수를 삼키고 내뱉고, 양수에 배설하고 탈각된 세포나 솜털을 분비한다. 상수와 하수가 함께 있다.

집은 보이지 않는 곳에 파이프와 전선 다발 같은 관^관을 품고 있다. 주요한 관은 상수도관^{water supply pipe}과 하수도관^{sewer pipe}이다. 우수관도 있고 단순 배수관^{drain pipe}도 따로 있기도 하다.

상수도 시설이 없었던 시절에는 주로 물을 길어 왔다. 자연에서 정수된 청수가 나오는 우물이나 샘에서 사람이나 동물이 통을 지고, 이고, 들고 집까지 가지고 왔다. 그리고 집수통에 부어 저장해 사용했다.

자연의 물은 저수 댐이나 저수지. 우물이나 샘물은 정수 처리 시설. 물을 길어 올리고(긴다: **draw, pump**) 운반하는 것은 급수 관로^{supply line}. 집에 있는 집수통은 수도꼭지.

생활용수가 없으면 사람은 일상을 일순一瞬 생활할 수도, 건강을 유지할 수도 없다. 계곡물을 끌어와 정수를 하든, 지하수를 파든, 상수도 인입 공사를 해서든 집에 물이 있게 해야 한다.

긴다. 물을 긴다. 영어로는 **draw**나 **pump**이다. 순우리말로 타 어족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단어 ‘긴다’. 더 이상 한국에서는 사용처가 없는 사전 단어이다. 두레박질을 해서 물을 길어 올린다. 더 이상 쉽사리 볼 수 없는 작업이다.

묻어서 그렇다. 관로를 묻어 놓았다. 묻다. 관을 묻다. 영어로는 Bury/베리/이다. 관槨이어도 관管이어도 모두 ‘베리’. ‘묻다’ 해서 ‘긴다’ 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래서 우물을 파고, 물을 길고, 들고, 채우고 하지 않는다. 대신 틀고 turn on, 잠근다turn off. 수도꼭지faucet를.

집에서 물이 사용되는 곳들, 주로 주방, 화장실, 세탁실, 목욕실, 세면대에서 상수上水는 하수下水가 된다. 이를 생활하수라고 한다. 수도꼭지에서 상수, 몸을 거치고 나면 하수, 양수와 같다. 마시고, 요리하고, 씻고, 내보내고. 물속은 아니어도 물과 함께 살고 있다.

무균 상태의 물인 양수는 태아가 9개월을 지내며 자라나는 자궁의 상수이다. 출산을 통해 태아는 모태에서 나와 인간 아기가 된다. 마치 깊고 어둔 산골²⁹에서 돋는 태양과 같다. 생명이 돋다. 돋고 나면 대기 속에 산다. 호흡하며.

그러나 여전히 물을 마시며, 물로 씻으며, 물로 음식을 해 먹으며, 물로 배설물을 내보내며. 물줄기에 연결된 사람 집. 땅 위 집에서 살다 땅 아래 묻힐 때까지 물을 매 순간 사용하며 산다. 집은 물 솟는 우물이고 샘이다. 물로 채워진

29 산골: 산과 산 사이의 우묵하게 들어간 곳.

자궁이다. ‘긴다’, ‘묻다’, ‘돋다’. 언어학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물과 인간의 존재를 마음에 연상하게 한다.

아직도 생수를 외부에서 길고 있는가? 나라는 집이여! 오랜 시절 한결로 수다數多히 배움과 성찰, 묵상과 명상으로 수행하며 상선上善의 수관水管을 몸 거죽 아래 깊이 묻어 놓았는가? 망실忘失³⁰된 모태에서 돌아나 자유와 사랑의 존재로 되살아나 살고 있는가? 나라는 집이여!

30 망실忘失: 어떤 일이나 사실을 기억 속에서 잊음.

침실

집에는 집체 자체부터 세워져 있거나 서 있거나 놓여 있는 것들뿐이다. 동물들만 누워 있다. 개든 고양이든 사람이든. 그중 사람만 유일하게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닌다. 앉았다가도 일어나고 직립 보행하며 이동한다.

집주인이나 가족들은 가구나 물건들을 놓히듯 놓고 가구를 배치한다. 영어로 하면 모두 Lay/레이/이다. 동물들이 알을 낳는 것도 레이이다. 사람이 침대에 눕는 것도 Lay down 혹은 Laid down이라고 한다. 한국어로도 ‘태풍에 나무가 누워 있다’라는 식으로 눕다를 사용한다.

그러나 사람은 눕는다. 누워서 쉬고 누워서 잔다. 그냥 누워 있기도 한다. 그러다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일어난다. 움직인다. 앉고 일어선다. 사람이 눕는 것은 사물을 놓히듯

두거나 사물의 형태가 누워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한국에서는 거실 바닥, 방바닥, 소파, 그 어디도 누워 잘 수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람, 대부분의 경우 집에 침실이 마련되어 있고, 침실에는 침대가 놓여 있어 그 위에서 누워 잔다. 인간의 이러한 행위는 침실의 과학이다.

침실은 침실답게 내장內裝³¹을 해 놓는다. 외부 빛, 내부 조명, 바닥재, 벽 컬러, 환기, 내부 온도, 침대 위치, 매트리스 사이즈와 스프링 강도, 침구류. 이 모든 부분들parts을 집주인 취향과 안목, 재정과 체질에 부합하는 완성된 공간finished product으로 조립하는 것이다.

집에서는 잠만 잔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현대인들의 과중한 업무와 노동, 먹고 살기 위한 외부 세계에서의 경쟁이 이유일 것이다. 한편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도 나름의 문제로 충분하고 편하게 누워 잠자기는 어렵다.

‘잠을 얼마나 못 자면 신체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가?’
 ‘하루에 최소 몇 시간은 자야 건강을 해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을 문제로 풀 마음은 없다. ‘침실을 진심으로

31 내장內裝: 내부에 설비나 장식을 갖추. 또는 그 설비나 장식. [예] 이 자동차만큼 내장이 뛰어난 차종은 없다.

‘좋아하는가?’ ‘매일 침실의 생활에 만족하는가?’ 이 정도 질문에 관심이 있다.

침실은 애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일상의 아주 고상한 취미가 되어야 한다. 일하기 위한 몸이 아니라 지치고 곤한 몸을 눕힐 수 있는 자신만의 소굴이 되어야 한다. 누워서 할 수 있는 일들에 관심과 애정을 주어야 한다. 배우고 시도하고 변화하는 기쁨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침실은 일어나 있거나 앉아 있기 위한 복합 공간이 아니다. 육체를 널 수 있다는 인간 고유의 행위. 휴식과 수면을 필요로 하는 몸과 고요와 친밀을 원하는 마음이 그들의 본래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상한 자리. 침실이다.

몽상과 상상, 무의식과 무아로 들어가 잠시나마 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침실은 사랑과 자비의 신의 초대장이자 동시에 연회장이다. 눕고 눈을 감으면 잠이 그대를 청하지 않는가? 부드럽고 다정한 침상에 눕고 누이면 수많은 감각의 접촉들과 운우雲雨의 정감情感이 가득 찬 연회로 흥락興樂³²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32 흥락興樂하다: (사람이) 흥에 겨워 즐거워하다.

침실은 집의 영혼이다. 제단이나 불상, 십자가나 성구들이 적힌 액자 같은 물품이 감히 집의 혼spirit이 될 수 없다. 사랑으로 자유하게 사는 이의 침실은 집을 내밀성의 영靈으로 가득 찬 거룩한 신전으로 化하도록 한다. 내밀성은 끌어들이는 힘을 행사한다. Bed Hole.

하루 대부분의 시간이 빈 공간. 단정하고 단아하고 단단한 뉘앙스. 정리된 정돈된 정갈한³³ 향내. 세속의 장소와 구별된 성전이요 사원. 몸과 마음이 태고의 순수와 자유로 기묘하게 융합되는 공간. 집의 신은 영으로 여기에 거한다. 들어가 참여參詣³⁴ 그리고 참여參預³⁵!

33 정갈하다: (모습이나 솜씨가) 깨끗하고 말쑥하다.

34 참여參詣: 신神에게 나아가 뵈.

35 참여參預: 어떤 일에 참가하여 관계함.

지속

‘여행 일정日程’은 사실 여정旅程itinerary의 의미를 차용한 단어이다. 원래 일정이라 함은 ‘그날에 할 일, 또는 그 분량이나 순서, 그날에 가야 할 길’을 뜻한다. 여정은 ‘여행 중에 거쳐 가는 길이나 여행의 과정 일체’이다. 출국하고 입국한다. 그 사이 ‘여정의 일정’이 잡혀 있다.

여정표an itinerary/a schedule에는 반드시 숙박지가 기재되어 있다. 여행 기간은 주로 숙박 일수로 지적指摘³⁶된다. 공항을 포함해 숙박 시설에서도 체크-인과 체크-아웃은 필수이다.

36 지적指摘: (무엇을) 꼭 집어서 가리킴.

여행의 기쁨, 여행의 매력, 여행의 설렘. 살아왔던 날들, 곳들, 관계들의 지속성이라는 구심력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데서 기인한다. 완벽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여행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만은 그 영향력 밖으로 나와 산다.

여행하는 동안 느닷없이 사라진 지속. 덕분에 여행객들은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이국땅에서 혹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국내 여행지에서 비지속적 존재를 확보할 수 있다.
New identity.

일정이 업무 일정이 아니다. 여행자 일정이다. 일정이 일상 스케줄이 아니다. 원해 왔던 스케줄이다. 여행지는 거주지와 이어짐 없는 객지이다. 그곳에서 여행자는 자아를 벗어 던져 놓고 살 수 있다. 가볍고, 자유롭고, 편하고, 신선하다.

이색적인 음식을 먹고, 긴장 없이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평소 못 해 본 활동들도 하고, 집일들을 하지 않아도 깨끗한 곳에서 보고 먹고 마시고 씻고 쉬고 잘 수 있다. 지상 천국?

천국이라도 갔다가 돌아와야 한다. 안 그러면 이제까지 살아오며 살아갈 날들까지 준비하고 있는 자기 일상의 일정에 문제가 생긴다. 일상-전자들이 고밀화되어 형성된 자기장磁氣場이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지속을 되살아야 한다. 원해서든, 원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달리할 수 있는 바가 없어서든 해 오던 대로 하루하루 일정을 살아 내야 한다. 직업과 사정에 따라 업무, 작업, 노동의 일들을 다시 이어 해 나가야 한다. 일정은 ‘한 날의 할 일들’이다. 여정이 아니다.

집은 단지 설계도의 구체화, 매매 거리, 토지 대장상의 기록, 지적도의 구획선, 사진으로 보여지는 단지 집 이미지가 아니다. 집은 지속성의 전류와 자력³⁷이 작용하는 자기장³⁸이다. 가능한 무엇이든 끌어와 지속화시킨다. 강력 자석.

집은 문패가 있든 없든 사람 이름네다. 성명姓名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 자아自我가 사는 곳이다. 아니 정확히 말해 자아로 살아야 하는 곳이다. 신은 벗고 들어가도 자아는 줄곧 텃집고 산다. 일상 가사家事의 강력한 자성은 누구네 집 소유·거주자를 지속적으로 당겨 붙인다.

37 자력磁力: 「전기」 자기의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

38 자기장磁氣場: 「물리」 자석의 주위나 전류가 지나는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여행 집 & 집 여행. 지난 8년간 여러 면에서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8년을 여일如一³⁹ 궁리하며 개념화한 나의 기도企圖⁴⁰였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처럼 여러 국가에서 공부하고 살고 일을 했던 인간은 드물다고 할 것이다.

영주권도 3개국, 국적도 2개국, 학사 이상 학위도 3개국이니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는 한 곳에만 있고 싶다’ 조條의 발상은 절대 아니다. 나의 성정性情과 원형原型을 곰곰이 살펴보면 여행과 탐험, 도전과 성취의 전인간적前人間的⁴¹인 면모가 발굴된다.

여행-가는-집과 집-으로-여행은 참으로 나답고 나롭게 있음liking하는 나의 성정性情의 뜻함이다. 고유하고 독특하고 깊은 일상성은 시계와 역사서로는 알 수 없다. 깨어 보고 있는 마음으로 실현 가능하다. 자아를 헛 싹처럼 버려도 된다. 이름이 몇 개이어도 된다. 나는 두 집을 여행한다. 지속성의 자성은 나의 자성自性.

일상생활에 필수인 가사家事. 반복되고, 변함없고, 지루하고, 귀찮고, 중요하지도 않음에도 매일같이 집살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주원인. 집 여행자인 나에게는 집요하게 지속되는 집

39 여일如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꼭 같이.

40 기도企圖: 어떤 일을 이루려고 꾀하거나 계획함.

41 전인간적前人間的(≠비인간적): 자기의 원래성, 현재 형성되어 나타나는 측면을 넘어서는 원형적 본성.

일이야말로 일상을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로 변용시키는 연금술alchemy이다.

집으로 여행을 가고 집에서 숙박을 하는 여정. 이것이 내가 현재 향유하고 있는 나의 현실이다.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다. 그러나 싶음-구현자에게 곡曲은 기본이고 절折은 의무이다. 기실 그 곡절은 존재가 자성체로 변이되는 과정.

집 생활의 부정성들 곧 반복, 권태, 하찮음, 무경제성, 사소함. 반면 집 사기 위해 하는 일, 집 꾸미기 위해 사는 물건에는 여가작용與價作用⁴². 결론은 지속되는 집 관련 일, 정리정돈이 싫다. 그러나 집은 지속이 진가眞價이다. 나는 매일같이 집-스테이하며 일상 집일의 지속성을 구심으로 예술성, 영성, 쾌락성을 융합한다. 마음 쓸고, 몸 닦고, 생각 세척하고, 글 짓는다. 노닐고 나닐고 거닌다. 집여행하며 집살이.

42 여가작용與價作用(글쓴이의 조어): 가치를 부여하다. 그런 마음이나 행동.

잠시

무엇이 나의 기준인가? 원리인가? 규칙과 규범, 원칙과 시비, 선백善白과 악흑惡黑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기준을 보고, 기본 원리를 파악하려 주시注視하고 있기 때문이다. 힘겹게.

그림을 그릴 때 기준점을 잡고 기본 화풍을 가지고 시작한다. 작곡을 할 때 떠오른 기본 선율을 기준으로 원리로 작동할 기본 감정과 감상感想⁴³을 가지고 시작한다.

설치 예술품을 만들 때 기준으로 삼는 주제theme나 주장assertion을 마음에 품고 전체 형태, 주재료, 위치할 공간의 특성을 기본 고려 사항으로 정리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43 감상感想: 마음속에 느끼어 생각함.

집도 기준과 기본 원리 파악을 시작으로 공사되고 완공한다. 건축주의 기준, 건축가의 개인적 소신과 성향, 건축법/술의 제諸 원리들.

집은 나에게 잠시⁴⁴가 기준이고 기본 원리이다. 짧은 나에게 잠시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긴 한동안⁴⁵이다. 잠시나 한동안이나 일기일회一期一會⁴⁶ 찰나刹那⁴⁷이다. 그래도 좋잇장 차이는 있다.

오십 년을 한 해 한 해 삶과 함께 살다 보니, 참으로 많은 집들을 거쳐 왔다. 어린 시절 기억이 나는 때부터 지금까지, 처음 외국 생활을 시작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살게 된 십오 년의 기간 동안. 이사에 이사. 이주에 이주. 지금 글 쓰는 대신 작성하고 썬해 보면 결국은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대략으로도 가늠도 안 된다. 태어난 곳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사 다닌 곳만 해도 두세 곳이다. 그 당시 이사 들어갈 때는 매번 행복해했고, 앞으로 계속 살게 될 것이라는 자연스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억이 있다. 이사 때마다. 그러나 실상은 다시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

44 잠시暫時: 오래지 않은 짧은 동안.

45 한동안: 꽤 오랫동안. 과거에 어느 일정한 시간이나 시기 동안. 한참.

46 일기일회一期一會: 평생에 단 한 번 만남. 또는 그 일이 생애에 단 한 번뿐인 일임.

47 찰나刹那: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불교」 지극히 짧은 시간.

75분의 1초에 해당한다.

집들은 잠시였고, 나라는 존재의 집에서는 보아하니 한동안은 살 듯하다. 어린 시절에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나아지면 나아지는 대로 주로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공급으로 집을 꾸미고 살 만한 곳으로 가꾸셨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돼서부터는 내 방은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대학 재학 중 외국으로 가면서 월세방이든 기숙사든 한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풍으로 꾸미고 청결히 관리했다.

그 이후 외국에서 생전 처음 집을 사서 이사했을 때는 한동안 집 꾸미고 가꾸는 데 신령과 진정이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늘 찾았고 구입해서 설치해 주는 즐거움도 대단했다. 정원도 가꾸고, 수영장도 관리하고, 키우는 개들을 위한 공간도 목재와 자재를 사다가 만들기도 했다. 그곳에서 7년 넘게 살았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곳을 회상해 보니 잠시였다. 잠시의 잠은 한자로 暫이다. 日(해 일)자와 斬(벨 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斬자는 車(수레 차)자와 斤(도끼 근)자가 합해진 것으로 ‘베다’의 뜻이다.

죄인의 사지를 다섯 대의 수레에 나누어 묶어 찢어 죽이는 고대 중국에 있었던 형벌의 명칭이다. 이러한 고통스럽고 참혹한 처형을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내 주었기 때문에 시간을

뜻하는 日자가 붙은 것이다. 매우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처형 방식이라는 것이다.

집이 자산 증식의 도구로만 혹은 대대로 지켜야 할 무변 유지의 대상으로만 극대극으로 대우받은 이 시대. 둘 다 아니다. 살 길 없다. 살 곳이 못 된다. 영원히 살 듯 그러나 잠시 거하는 주어진 거처로 감각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진정한 터득⁴⁸일까. 꾸미든 가꾸든 사랑만이 오래 거라. 집은 잠시 후 끝난다. 은총.

48 터득⁴⁸得: 이치를 깊이 생각하여 깨달아 알아냄.

만찬

일일일식日日一食하는 나에게는 집에서의 늦은 저녁 식사 the evening meal는 최고 최상의 향락enjoyment이다. 잠에서 깨어남으로 무의식의 존재는 의식을 차리고 인간 노릇을 해야 한다.

도리와 도덕의 세상살이 시작! 이제는 하루 중 특별히 이질적이거나 불편한 시간대는 없다. 그러나 나는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쉴 새 없이 정신과 육체의 욕구대로 정제된 루틴을 행한다.

거의 모두 집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다. 책과 음악으로 시작해서 정신의 리듬과 글쓰기를 통과해 몸의 수행에 정진한다. 명상을 곁들여서. 속삭이고 싶다. 큰 소리가 아니라

율조림으로. 오후는 늘 그러하다. 다만 나답거나 나로서가 아닌 생략하고 절제하고 도덕과 도리에 맞게.

그러다가 늦은 오후가 밤이 되려고 할 때, 만찬晩餐의 기회가 온다. 만찬은 ‘늦은 저녁 식사’라는 뜻이다. 사람들을 모아 놓고 크게 별이는 잔치라고 뜻풀이되어 있지만, 어디를 봐서 만찬이 그런 연회인가? 늦은 식사라는 것 외에는 살짝 억지 맞춤이다.

7시 이후에 시작되는 하루 중 최초의 식사는 흥반갈주 吃飯喝酒/츠판허어지오우/이다. 먹고 마신다. 오늘 최후의 만찬이다. 하루의 가장자리로 향하는 일상 최고 최상의 흥락 興樂의 시간이다. 의식과 무의식이 동석하는 유일한 순간.

생존을 위해, 연명을 위해 영양분을 공급받는 상태가 우리 인간 공통의 분모分母이지만, 사는 동안 먹고 마심의 깊이와 너비, 기쁨의 질과 양은 공통 부분 없는 분자分子이다. 하루 저녁 한때 놀 수 없으면 일할 연유 있을까? 일 안 하면 먹고 마시지도 말라는 말씀의 진의眞意는 실상 이것 아니었겠는가? 되짚어 본다.

먹고 마시며 흥을 경험할 수 없는 자는 원래의 인간성을 상실한 자이다. 불과 물과 술과 육이 차려진 상席은 진리의 사람이라면 받아야 할 당연한 상賞이다. 진행복

前幸福⁴⁹이 수여된다.

현대의 전대纏帶money belt들은 집에서 만찬할 수 없다. 집에 자신과 사랑, 육肉과 주酒가 멸종된 생태이다. 오로지 타인과 인정, 정보와 지식, 먹거리와 마실 거리만 필요로 할 뿐이다. 차고 있는 전대로 시간 전부를 결제하면 될 뿐이다. 먹고 마시고 자고 깬다. 다르게는 싫다.

집에서 사랑으로 차려진 사랑스러운 만찬 상은 종이 지폐, 금속 골드바로는 가능치 못할 일상의 부요이다. 자는 전 의식을 잃기 전까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집에서 하루의 마무리를 이토록 감각과 감흥의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만찬의 호사는 사랑을 품은 존재가 자유의 존재로 살기 위해 회포懷抱⁵⁰를 품이다. 늦은 저녁 식사는 찬탄할 만한 해소의 시간이다.

만찬은 성찬이든 빈찬貧饌이든 집을 천국한다.

49 전행복前幸福: 개별적, 시대적, 문화적 행복이 아닌 원초의 행복, 원래의 행복.

50 회포懷抱: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정.

벽

집은 벽과 문이 있다. 집 한 채에 수많은 벽체와 창과 문이 있다. 심지어 동화에 가끔 등장하는 공주가 갇혀 있는 높은 돌탑도 마찬가지다. 밖에서 굳게 잠겨 있기는 하지만 지면 위로 큰 문 하나가 있다. 그리고 흡사 나사못 같은 층계들은 원통 벽체로 좁디좁게 상하로 꼬여 있다. 찌엄찌엄 뚫어 놓은 창은 빛과 공기를 받아들인다.

벽은 공간을 나눈다. 문은 열고 닫을 수 있어 벽체로 막힌 두 공간을 오고 갈 수 있게 한다. 창은 외부와 내부만을 창조해 놓은 건물 벽체를 도와 외부 자연을 내부로 들이고 내부 것들을 밖으로 내보낸다.

집은 벽으로 폐쇄⁵¹한 공간이다. 비바람, 강한 열기, 추위, 동물들과 곤충, 흙먼지와 꽃가루, 타인과 범죄를 막는다. 막아 둔 곳이 내부이다.

벽은 견고⁵²하고 견실⁵³하고 건강⁵⁴하다. 꼼짝없이 내부와 외부가 생긴다. 내부를 외부로부터 막아 주고 보호해 주고 따로이 존재하도록 해 준다. 벽으로 집은 건축물 형태로만이 아닌 집이라는 공간을 확정⁵⁵해 준다.

사람이 사람을 안을 때 등이나 어깨를 만진다. 신체 간의 접촉이다. 마음을 담은. 때때로 나는 집을 밖에서 안아 준다. 정확하게는 안는다고보다 손바닥으로 몇 번 툭툭 치다 팔 앞쪽을 가만히 대고 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집 안 생활이 주로인 나에게는 이를 평화와 안락 속에서 가능하게 해 주는 든든한 이가 바로 몇 차례나 공사로 보강하고 색을 입혔던 외벽이다. 지붕도 물매⁵⁶가 있는 벽이다. 하늘 쪽 경사각을 고려해 얹힌 벽체이다. 벽이 없으면 집이 아니다. 벽이 있으면 집이 될 수 있다.

51 폐쇄閉鎖: 문을 닫아 외부와 통행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함. [반의] 개방.

52 견고堅固하다: (사물이나 모양이) 쉽게 변하거나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튼튼하다.

53 견실堅實하다: (무엇의 구조나 내용) 튼튼하고 굳건하다.

54 건강堅剛하다: (사람이나 그 성질) 매우 굳세고 단단하다.

55 확정劃定하다: (사람이나 기관이 어떤 범위나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하다.

56 지붕의 물매: 지붕 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경사도.

집 내부에도 온통 벽이다. 집 나름이겠지만, 외벽이 내벽인 벽 말고도 벽체를 세워 구획을 하고 각 공간을 명명命名한다. 취향과 용도에 따라 벽체를 허물고 다른 곳에 새로운 벽체를 세울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재명명再命名한다.

집이 폐쇄 공간이 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벽은 집의 내밀⁵⁷한 가치를 보존한다. 벽 안에서는 벽 밖에서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생각과 생활이 가능하다. 유리처럼 사방이 투명한 집은 장식용 혹은 작품용이지 거주용은 아니다.

벽이 없으면 문도 창도 필요 없다. 가끔 설치 작품으로 들판이나 절벽 위에 뜬금없이 발판과 대문을 세워 두거나 창문을 띄워 설치해 놓는 경우가 있다. 문 없어도 창 없어도 들어갈 수 있고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다. 문이 문으로서만, 창이 창으로서만 존재의 가치는 없다.

벽이 있어야 한다. 벽을 세워야 한다. 벽으로 상하좌우 막아야 한다. 그래야 집이다. 그리고 그래야 대문, 방문, 창문이 존재하며 기능할 수 있다. 벽을 볼 때마다 덕분德分에 내가 집에 있을 수 있다 여겨진다. 뚫린 곳 하나 없이 막혀 있는 덕분에 문으로 드나들고 창으로 빛과 공기를 내들인다.

57 내밀內密: 어떤 일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

미국과 멕시코 국경이나 이전 동·서독 경계에는 장벽이 있다. 정치, 이념, 인종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장벽 역시 문이 있다. 누구를 자국home land에 들이고 못 들어오게 할 것인지의 결정에 따라 관문은 열리고 닫힌다. 그리고 그 문 말고는 장벽이 있어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입국 불허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 전 반드시 집 문을 잠글 것이다. 오기로 한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진입 불가이다. 문과 창만 단속하면 벽-장벽이 막아 줄 것이다.

벽이 있는 집에서 살體驗 때 안락安樂하고⁵⁸ 안온安穩하다⁵⁹. 벽체로 각 공간이 유려流麗하게⁶⁰ 획정된 집에서 살體驗아갈 때 앉았을 때나 일어나 움직일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하늘나라 마음이다. 존재에 벽이 있을 때, 세속의 풍진이 들지 못하는 것이다.

장자가 말한 대로, ‘사람은 방 안에 갇혀 고요해야 도道를 들을 수 있다.’ 벽은 도달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수행과 성장의 조건이라는 말이다.

58 안락安樂하다: (대상이) 근심, 걱정이 없이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다.

59 안온安穩하다: (공간이나 분위기) 조용하고 평안하다. (날씨가) 바람이 없고 따뜻하다.

60 유려流麗하다: (대상이) 거침이 없이 미끈하고 아름답다.

동양 현자에 연連해 서양 학자 칼 융이 말한다. ‘경계가 없이는 자아도 없다. 분리가 없다면 의식도 없다.’ 외부가 아니라 사람 내면에 천국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삶이 지옥 같다 한다. 지옥은 벽이 없다. 내 쪽 벽이 없으면 그대로 흘러 들어온다. 견고, 견실, 견강한 영혼의 벽이 있어야 좋은 집-사람이 된다.

옷

집은 옷을 벗고도 있을 수 있는 곳이다. 집은 거주하는 이의 몸과 피부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실내 기온과 몸 상태, 개인의 취향 정도가 어떤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영향을 준다.

옷이라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실한 어원은 알 길이 없다. 국어학자들의 설명은 ‘의미 기원’이다. 옷은 원래 ‘몸을 덮는 것, 감싸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순우리말로 ‘몸을 감싸는 덮개’가 한 음절 단어 ‘옷’이다.

영어로 옷은 Clothes/크로우즈/이다. 중세 영어에서 천이나 피륙을 지칭했던 Cloth/크로쓰/의 복수형이다. 사람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덮개가 옷이다. 원단이 무어나는 그다음 복식 문화fashion의 영역이다.

성경에도 옷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지구 첫 인간 아담과 이브가 신의 ‘Do not eat!’ 금지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the Tree of Knowledge를 따 먹었다. 그 직전까지는 옷을 입지 않은naked 몸body으로 살아왔었다. 에덴동산에서는 나체naked body는 노출된naked 모습이 나 상태가 아니었다.

그런데 벗었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 이후로는 없어지지 않았다. 다윗 왕 한 명 정도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naked의 기쁨으로 옷을 잠시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있다. 다시 돌아와 아담과 이브.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을 엮어 허리에 둘렀다.

신이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추방한다. 실낙원失樂園Paradise Lost. 아담과 이브는 벌과 함께 선물도 하나 받는다. 창조주가 직접 동물을 죽여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준다. 지속성. 지속적 보호.

어느 정도까지 복장으로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다. 판사복, 승무원복, 의사복, 간호사복, 환자복, 작업복, 경찰복 등등. 옷 입음새로 그 사람 대략의 취향이나 태도를 알아채기도 한다. 하는 일과 사람됨이 옷을 통해 드러난다.

또한 옷은 보호 목적으로 입기도 한다. 방화복, 방한복, 화학 방호복, 방진복, 방수복, 방사능복 등등. 모두 유해한 외부 물질이나 자극을 막아 주는防 특수 섬유들이다.

집에 들어오면 외출복을 벗고 홈웨어home wear로 갈아입는다. 최소한의 옷만 걸치고 있다. 몸이 편하다. 피부가 노출되어 숨 쉰다. 홈웨어에 해당하는 한국어가 없다. 적어도 사전에는. 집 옷? 아닐까 싶다.

집 옷은 나에게 근본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덮고 있는 나의 피부이다. 이 옷이 나는 참 좋다. 고맙다. 살결과 조그만 모공들.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 제한이 있을 때가 있지만, 집에서는 에덴동산에서와 같이 덮개나 가리개 없이도 지낼 수 있다. 실낙원이 복락원復樂園Paradise Regained이 되는 구원의 성취.

자기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가 집 옷을 입고 집에 살고 있다. 타인의 인가나 인증, 사회의 기준과 규칙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유리같이 투명한 영혼의 소유자가 집 옷 없이도 집에서 살고 있다.

자기 피부만으로도 자신을 방호防護할 수 있는 동물성을
다시 회복한 자. 자기 피부만으로도 자신을 단정하고
단아하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

자기 피부로만 느끼고 감촉하고 사랑할 수 있는 순간들을
감지하고 포착할 수 있는 자. 자기 피부를 맑은 공기와 푸른
물로 정성껏 씻길 수 있는 자. 집은 이 이에게 정녕 낙원이다.

정복

하루의 마지막은 집에 돌아가는 것이다. 집에서 일하는 이 역시 일-공간에서 집-공간으로 돌아온다. 집 없이 노숙하는 이들은 집-같은-공간으로 들어간다. 어디 있었든 누구와 있었든 무얼 했었던 하루 일정의 마무리는 귀가이다.

집은 집 자체의 거소居所이다. 강력한 고정성이 그 본성이다. 자신의 거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자기들이 아닌 이종동체 異種動體가 침입한다. 소유자든 세입자든 남녀노소 누구든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집에 대한 정복은 시작된다.

여기서 정복征服은 ‘무력으로 정벌해서 탈취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다. 사전의 두 번째 설명이다. ‘어려운 일을 해내어 자신의 뜻이나 목적을 이룸.’ 예시로는 ‘완전

정복’, ‘수학 정복’, ‘히말라야 산정 정복’. 두 번째 의미에 가까운 뜻으로의 정복이다.

집은 절대 무감무동無感無動이다. 스마트 홈 시스템, 자동 가전기기들을 갖추어 놓아도 집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집이 그것들을 정복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 가게 하고, 올라가게 하고, 내려가게 하고, 배선으로 잡아 놓고, 무선 신호에 한계를 준다.

집은 변용과 변화에 본질적으로 저항한다. 우선은 거부하고 본다. 건조建造된 일체의 건축물들은 그 자체가 저항이다. 무엇을 향한 저항? 이미 언급되었듯 동작動作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거부이다.

무동고정체無動固定體이니 반항 행위라는 적극성은 없다. 다만 비협조적이다. 집의 움직임에 대한 저항은 행위에 대한 비협조성이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TV를 보며 저녁을 먹는다.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켜고 아이폰을 보면서 작업을 한다. 집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집은 동작들을 보기만 한다.

집에 들어와 집을 바라보는 이는 없다. 집에서 산다는 것은 집에게 자신을 내보이며 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집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말 안 되는 말이 아니다. 집은

거주 공간으로서 거주자의 집 공간 사용에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집은 외부의 것들과 적극적으로 교전交戰한다. 견고하고, 견실하게, 건강하게 고정 상태의 몸체로 밀리지 않고 이겨낸다. 이 상태 이 기세로 내부의 것들에 대해서도 단단하게 버티고 있다.

로봇처럼 집은 쓰임 받지 않는다. 거부한다. 무관심하다. 거리를 둔다. 기본이 그렇고 원래 그렇다. 그러나 나는 늘 집과 함께 변용되고 변화하고 있다. ‘집과 함께.’ 그림 하나를 걸어 놓으려 해도 벽에 못을 박아야 한다. 집은 내가 하려는 대로 둔다. 저항이 있지만, 비협조적이지만, 제약을 주지만, 내 식式과 풍風을 막지 못한다. 집에 살면서 집과 더불어 정복해 간다.

『어린 왕자』.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자신을 ‘길들여 달라’고 부탁한다. 어린 왕자가 그게 뭐냐 묻자 이렇게 설명한다.

길들인다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지금 넌 내게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나는 네게 수많은 여우 중 하나일 뿐이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될 거야... 네가 장미를 특별하게 만든 건, 네가 그 장미에게 시간을 쏟았기 때문이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선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해.

집을 정복해 가며 사는 존재는 깊고 향기롭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취향, 노래와 춤을 쏟으며 살고 있다. 길들임이 있다. ‘천국은 침노**침노**forceful advance⁶¹를 당하는 곳이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것이다 (마 11:12).’ 집이라고 왜 아닐까? 단지 몸과 제품들의 공간이 아니다. 집을 담대하고 담백하고 담담하게 정복해 나가는 정성과 헌신이 있을 때 집은 천국이 되어 나를 보고 있다.

61 침노**침노**: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거나 해침. 남의 나라를 법이나 도리에 어긋나게 쳐들어감.

구색

한동안 동네마다 여기저기 보이는 김밥 가게가 있었다. 김밥 종류만 14개, 면 종류만 20개, 분식류는 16개, 식사류는 25개, 죽이 2종류, 가스류라고 해서 4개, 세트류는 9개, 계절 메뉴는 2가지이다. 세트류와 계절 메뉴에서 한 가지를 빼면 82개의 메뉴가 제공된다. 이 정도면 천국이다. 수효數爻⁶²의 천국.

메뉴 수로 하면 세상의 모든 식당들은 그 김밥집 아래 어딘가에 순위하고 있을 것이다. 한 가지만 파는 곳에서부터 81개 메뉴가 있는 식당까지. 그런데 미술랭까지는 아니어도 구독자 수가 남달리 많은 식당-먹방-유튜버 채널들을 보면 노리고 들어가는 소위 ‘킵kick 메뉴’가 있다. 오랜 역사가

62 수효數爻: 사물의 낱낱의 수.

있는 음식이든 퓨전 음식이든 이국적인 음식이든. 음식은 전문적이고, 식당 분위기는 차별화된 것이 핵심이다. 한 우물 파기 式으로 깊게 파고들어 퍼 올린 주주 요리.

프랜차이즈franchise 방식의 식당들은 본사에서 변하기 마련인 소비자 입맛에 맞추어 메뉴를 정하고 사업의 틀을 잡아 가맹점 식당들을 오픈한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메뉴 변화를 시도한다.

그 외의 식당들은 소위 ‘원조元祖’가 될 만한 음식 하나가 그 식당 이름이나 간판이다. 이를 중심으로 자식子息-메뉴들이 몇 가지 정도 있다. 그 음식만큼은 모든 식당들이 ‘시조始祖’.

혹은 한 달 내내 매일 맛이 다른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아이디어로 매장에 31개 이상의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놓은 배스킨라빈스처럼, 82개까지 메뉴를 늘려 ‘가짓수’로 승부를 볼 수도 있다.

집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집 평수나 건령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집에도 메뉴가 있다. 메뉴는 전해 내려오는 가풍家風도 인테리어 풍風도 아니다.

집의 메뉴는 구색具色assortment⁶³이다. 구색을 맞추고 갖춘다는 영어 단어는 assort이다. 라틴어에서 파생되었다. ‘sors’는 운명, 몫, 제비뽑기의 의미이다.

프랑스에서 ‘ad(~에 맞추어)’와 ‘sortir(맞추다, 분류하다)’의 assortir(서로 어울리게 맞추다, 분류하다)가 되고, 그 후 ‘ad-(toward, ~를 향해)’와 ‘sort(종류, 운명, 몫)’의 assort(종류에 맞게 정리하다, 서로 어울리도록 맞추다)가 영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집은 구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구색이 주요리主料理이자 수많은 메뉴들도 낼 수 있는 시조the originator이다. 알 낳는-시조-거위. ‘구색만 갖춘다.’ 실속 없이 보기만 좋다는 부정적 표현이다. 그러나 ‘구색만 갖춘다’가 아니다. ‘구색을 갖추게 하다’이다. 具色. 중국에서도 안 쓰는 표현이다. 한국 한자어이다. 갖추와 맞춤의 조화성과 어울림을 나타낸다.

무색무취, 무미건조한 집에 구색을 갖추려는 의식과 헌신을 발휘하면, 집은 시절을 따라 무미嫵媚⁶⁴해져 간다. 식당에는 차림표가 있고 재료들을 조리해 요리를 손님에게 제공한다. 집에는 차림새가 있고 거소인居所人을 요리-조리해 인간의 구색을 갖춘 존재로 새로이 빚어낸다.

63 구색具色: 여러 가지 물건이나 요소들이 서로 어울리게 고루 갖추.

64 무미嫵媚: 몸가짐이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움.

구색을 맞추는 과정은 필름 사진이 인화되는 과정으로 전치轉置⁶⁵할 수 있다. 필름 사진기, 필름, 암실, 현상, 인화지, 화학 용액들. 인화된 사진 한 장. 나의 심상에 잡힌 이미지와 감성이 성정의 암실에서 나의 좋음liking으로 화학 처리된다. 집이라는 인화지에 현상現象된다.

견고한 직선의 고체 덩이, 각져 있는 기둥들, 수직으로 솟다가 이내 막힌 천장. 그 속에 비치備置된 가전기기들, 그림들, 조각들, 가구들. 구색의 메뉴를 만드는 재료들이다. 집은 고절⁶⁶하게 구색을 맞추어 주면 음식을 내놓는다. 더욱 맛·맛·향 깊어진 나뉘 그리고 일상을 살體驗음. 집 구색에서는 나날이 날이 잘 간다.

65 전치轉置할 수 있는: 딛 곳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displaceable, transposable.

66 고절高節: 높고 고결한 절개. lofty virtues.

배출

2024년 서울시 ‘생활폐기물’ 자료를 근거로 서울 한 가구당 쓰레기 배출량을 계산하면 1년에 841kg 정도로 하루 평균 2.3kg이다. 매일 평균 한 집에서 여러 종류의 쓰레기를 생수 2L 무게만큼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가정용 수도물 사용량 통계(1인당 하루 2인 가구 210L, 3인 가구 174L)를 자료로 계산해 보면, 가정에서 쓴 물은 거의 그대로 오수가 되므로 서울시 한 가구당 발생하는 가정 오수는 하루 약 440L, 연년 약 160톤이다. 쓰레기 배출량의 190배쯤 되는 무게이다.

위의 통계는 둘 이상 세 명 이하 함께 사는 가구 기준이다. 그러면 한 사람, 한국인 평균 성인 한 명의 몸은 얼마를 배출할까? 평균 1.3~2.0kg이다. 서울 평균 한 가구원 수는

2.2인이다(2023년). 한 가구당 하루 2.9~4.4kg, 연간 1.0~1.6톤 정도의 대소변을 배출하고 있다.

집은 배출물의 주산지主產地이다. 인간의 거소居所dwelling place이기 때문이다. ‘울(둘러쌌, 막음)’과 명사형 접미사 ‘-이(장소)’가 결합된 단어 ‘우리’. 일본어로도 囲い(かこい, kakoi), 둘러싸인 공간이라는 뜻이다. 근원적으로 집은 인간이라는 고등 동물의 우리이다.

아예 가축 우리로 의미를 특정한 영어 pen까지도 한자 家(집가)의 어원과 통한다. 건물로의 집房子에서 가축과 함께 생활했던 가정家庭을 자기 집我的家이라 했었다.

사람도 동물이고, 가축도 생물체이다. 우리 집이든 우리로의 축사畜舎에서든 동물들은 몸과 생활로부터 오물을 배출하고 배출된 오물은 다시 집 밖으로 배출된다.

배출은 살아 있는 상태의 현상이다. 집이 건물로서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죽어 있지 않다면 계속 배출한다. 사람이 사체가 아니라면 신진대사하며 매일 배출한다.

배출에 문제가 없는 몸이 건강한 신체이다. 쓰레기든 하수이든 배출이 막힘없고 제약 없이 원활⁶⁷한 집이 살아 있는 집이다. 집으로서의 명맥⁶⁸을 유지하고 있는 집. 생활⁶⁹이 있는 집. 생활 쓰레기와 생활하수라는 배출물의 주산지.

나에게는 생활 기본으로 삼는 두문자어頭文字語acronym⁷⁰가 있다. SEESSIS(Sleep, Excrete, Exercise, Study, Speculate, Intimate, Savor). 이 중에 Excrete/익스크리트/는 ‘노폐물이나 사용이 끝난 부적당한 것을 배출하고, 배설하고, 방출하다’이다.

인간은 소변이나 대변, 땀, 이산화탄소, 체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설한다. 이를 통해 체내 체액과 전해질, 열과 노폐물을 조절한다. 배설을 못 하면 몸 안에 독소가 축적되고 장기들이 기능을 못 하는 등 결국 생활 부전不全이 된다.

몇 년 전 집에 하수관 공사를 했다. 정화조로도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었다. 오히려 100미터 조금 넘는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집 진입로까지 하수를 배출하기 위해 하수 펌프가 필요했고 중간에 있는 계곡에 놓은 다리

67 원활圓滑: 거침이 없이 잘되어 나감.

68 명맥命脈: 살아 있는 목숨이나 맥을 이어 나가는 근본.

69 생활生活: 생명이 있는 동안 살아서 경험하고 활동함.

70 두문자어頭文字語: 애크러님. 첫 글자로 만든 발음 가능한 단어.

인해 땅속 관이 다시 외부로 노출되어 다리 옆에 설치되었다. 처음 설계와 시공이 부실해서 관로는 막히고 터지고 결국 두 번째 공사로 완결되었다. 정화조가 완전 폐쇄되고 집 배관들이 도로의 공공 하수관로와 연결되는 순간 지출된 비용도 이런저런 번거로운 수고도 심지어 부실 공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도 함께 배출되었다. 좀 특별한 지형·면적·위치의 집이기에 상수관로도 상하좌우로 인입되어 있었다. 메인 관로에서 고압으로 들어오는 상수와는 달랐다. 집에서 나오는 하수를 내보내는 것은.

배출하는 몸. 몸이 집 생활하며 만드는 오물들을 배출하는 집. 더럽고 냄새나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을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배출할 수 있음에 감사의 가정家情⁷¹ 집이고 싶다.

71 가정家情(글쓰이의 조어): 집이나 집안 사정에 관련된 따뜻한 정, 애정.

연가

戀家

나는 지금 몽상 속에 있다. 해발 400미터 정도 되어 보이는 무수림無樹林 돌산이 있다. 중간 정도에 오두막집이 있다. 거기에는 예전 전쟁에서 성벽을 지키는 군사들이 사용했을 법한 무쇠 화통火桶이 보인다. 한 시간에 한 번 누군가 나와 기름 묻힌 천으로 감싼 나무채를 화통에 넣다 빼 절벽 바닥으로 던진다.

돌산 바닥 넓디넓은 평지에는 높이 30미터는 되어 보이는 적송赤松들이 빼곡히 자라고 있었다. 이곳 적송은 영생의 나무여서 적송 수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바로 자라고 빨리 자라고 다시 자란다.

중간에 불 던지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로 인해 적송은 언제나 불타고 있다. 화염의 강력한 기세가 오두막집 바로 아래까지 올라온다.

나무 사이사이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나무 그루만큼 아니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불 속에서 까맣게 그을린 모습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희한한 점은 사람들이 햇불을 들고 다니며 불을 붙이고 있었다. 중간에서 불을 던져 주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경쟁하듯 달려와 자신의 햇불에 불을 댕겼다.

바닥 세계 중앙에는 때때로 뜨거운 금물이 솟는 간헐천이 있었다. 사람들은 금물을 받아 굳으면 다시 불로 녹여 자기 집들을 지어 살고 있었다. 적송이 타 없어진 자리에 집을 빨리 지어야 누울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다시 적송이 빠르게 자라나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집은 위로 들려 올라간다. 다시 집을 지어야 한다. 기실 그 돌산은 금맥이 핏줄처럼 퍼져 있는 황금 산이다.

몽상가가 400미터 정상에서 중간 오두막지기를 큰 소리로 불렀다. 잠시 후 불 던지는 이가 나왔다. 그래서 물었다. ‘여기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이런 살 곳 못 되는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답은 이러했다. ‘이곳은 천국입니다. 이곳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발로 이곳에 이주해 와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유? 이유는 황금입니다. 황금뿐입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한 가지만 더 물어보았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간명했다. ‘당신이 서 있는 곳까지가 우리들의 천국입니다. 이제 들어와 살 게 아니라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나는 몽상에서 깨어나 글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곳 집에서 명상을 한다. 깊은 충일감.

성경에서도 천국을 정금으로 만들어진 집城,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진 길, 벽옥으로 쌓은 성곽,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된 12가지 기초석, 진주로 만들어진 12개의 문으로 묘사한다.

명상할 때는 몽상가가 탐험한 천국도 종교들이 상상하는 천국도 갈 수 없는 곳이 된다. ‘지금-여기-이렇게’를 참되게 오랫동안, 진정으로 한결같이 ‘극락極樂한 하늘집天城’으로 살體驗고 있기 때문이다. 참된 삶永生이 현금現今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도스토옙스키의 진단대로 지옥은 다름 아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그 괴로움을 살體驗고 있다면 어떤 류類의 천국이라도 그 어디나 기실 지옥이다.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삶도 진정한 무엇이 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요.

결혼 방식이 두 범주로 구분되던 시절이 꽤 길게 있었다. 연애戀愛결혼과 중매仲媒결혼. 연애결혼은 영어로 a love marriage, 연애결혼하다는 marry for love이다. 중매결혼은 an arranged marriage, 중매결혼하다는 have an arranged marriage이다.

집을 사랑하고 집이 사랑한다. 이런 문제는 일어날 일이 없으니 집과 사랑은 어떻게 상호 작용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집은 연가戀家Loving-house⁷²이어야 지옥계 밖이다.

Lovely(사랑스러운, 멋진), Lovable(매력적인), Lovelily(멋지게, 아름답게)하게 지어지고, 실제 그렇게 보이고, 최상으로 장식된 집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Lovingly(애정으로, 정답게, 충실한, 공들여)하게 ‘삶-터로의 집’과 ‘삶-결으로의 공거인供居人’을 연애戀愛love하는 사랑-사람

72 연가戀家(글쓴이의 조어): 혈연, 지연, 학연, 인맥의 인연이라는 수박 겉에서 무늬 지으며 걸할기 하는 관계에서 탈주해 사랑이 인생의 주제요 역사의 주제는 자유라는 얇으로 자신과 상대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좋아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도우며 사는 공거인供居人들이 사는 집. 열매 안으로 꽃을 피우는 무화과나무 집.

loving one이 없다면 천국도 아무것도 아니다. 신神이 있는
곳에 연가가 있다.⁷³

73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톨스토이 단편 중 하나. 사랑이 있으면 그 어디나 신의 천국이다.

재택임종

在宅臨終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안다. 말 꺼낼 필요도 없다. ‘어떻게’가 ‘이렇게’화化되어 지금 여기 일상을 살體驗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살 것인지 마음 깊이 알고, 입은 점차 더 닫고, 오직 몸으로 실험하며 실현하고 있다. 나의 몇 가지 성향 중 토포필리아topophilia⁷⁴가 있다고 3장 ‘집’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집 사기보다는 집 살기. 집 소유보다는 집 소요逍遙⁷⁵. 나의 영혼의 공간과 존재의 좌소座所로의 장소가 나의 집이다. 식물에 빗대 말하자면, 나는 집에 뿌리내리고 생식하고 성장하는 생명체이다.

74 topophilia: topo(장소, 땅, 지역)+philia(사랑, 애정, 우정, 애착). 장소에 대한 사랑·애호.

75 소요逍遙: 마음 내키는 대로 슬슬 거닐며 돌아다님.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와 장소 상실』에서 현대 사회에서 개인에게 의미 있는 특정 장소는 소멸되고 거대·유행·군집의 무장소placelessness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대인들은 장소와 공간의 다양한 경험의 변화를 이해하는 지리적 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 실존의 토대가 되는 장소는 한 인간의 생활 세계이다. 또한 인간다움이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장소를 가지는 것과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무장소성에 감염·마비되어서 도무지 머물기 좋아하는 특정 장소도 없고, 마치 좀비처럼 도시를 배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국가 기관이나 기업들이 박물관, 미술관, 테마파크, 경기장, 체험 학습장 등을 전국 비슷비슷하게 제공해주고 있다.

나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체득한 앎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낳았고, 그 **싫음liking**(애호, 취향, 상태)은 성장하여 ‘어디서 살고 싶은가’를 낳았다. 나의 집들이 그 직계 자손들이다. ‘좀비들’은 삶의 끝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자기 싫음과 구현, 주체적 결정과 책임이 부재했던 삶이었기에 그 질문에 대한 자신다운 답을 못 할 것이다.

내겐 ‘어디서 죽을 것인가’가 결정됐다. 사는 집이 죽는 곳이다. 재택임종. 나는 내 죽음을 내가 경험할 것이다. 그리나 살던 내 집에서.

집-사는-나? No!

나-사는-집!

내 삶이 사는 장소, 집.

사는 집이 죽는 곳이다.

나는 내 죽음을 내가 경험할 것이다.

그리 나 살던 내 집에서.

01 집 밖

02 안 內

03 집

04 전기

05 물

06 침실

07 지속

08 잠시

09 만찬

10 벽

11 옷

12 정복

13 구색

14 배출

15 연가 戀家

16 재택임종 在宅臨終

집